[the300]  
  
  
  
  
  
  
  
[광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05.18.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저는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민주의 문'으로 입장했다. 이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마음을 다해 안식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일상의 여유조차 누리기 어려운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에 5·18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2024.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안은나 기자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미래세대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전과 기회의 토양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故) 박금희·김용근·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